

His Story



2024 동역회원 수양회

머릿말		
한국교회는 쇠퇴해도, 하나님나라 공동체는 자라납니다!		4
수양회 스케치		
1월 29일		10
1월 30일		18
1월 31일		24
동역회원 이야기		
한연경 사모		32
김혜립 사모		36
지창현 목사		41
박대원 목사		46
이지일 목사		50
황사라 권사		54
신동주 안수집사		58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66
설문조사		76
맺음말		
하나복 동역회원 수양회를 마치며...		86

한국교회는 쇠퇴해도, 하나님나라 공동체는 자라납니다!

1. 쇠퇴하는 한국교회...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이 왜곡된 지 오래되었기에, 그런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메시지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시류에 따라 흥했다가, 시류에 따라 사그러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것에 놀라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본을 따져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라지가 좋은 씨앗과 함께 자라고, 접붙인 가지도 잘려나갈 수 있으며,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하나님나라 공동체는 세속은 물론 사망의 권세도 흔들 수 없습니다!

2. 길을 잃은 목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와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목회는 길을 잃습니다. 교인들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이 목회가 되었습니다. 한숨짓고 하루하루를 버텨 내기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꽤 잘 사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설교를 잘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로 둔갑되었습니다. 당연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성장시킬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만 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초대 교회 리더들도 한 사람을 살리고, 그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듯이 살아가며, 사람들, 곧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3. 공동체가 없는 교회... 그러나!

소고기 없는 불고기! 야채가 없는 샐러드! 이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공동체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되어 운영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든 비신자든 교회를 종교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서 종교적 필요를 채우는 조직. 이런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던 말입니까? 일정 기간 이런 종교기관들이 융성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한국교회는 쇠퇴기, 폭망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에 기초한 진실한 공동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고 계시니 가능합니다.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하나복 동역회원 수양회에서 나눈 메시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쇠퇴해야 할, 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의 껍질들, 죽은 조직과 전통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들의 한계가 드러나면 결국 무너집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조직 중의 하나이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공동체는 작더라도, 미약하더라도 지속되며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원하는 목회자들입니다!

2024년 2월 1일
김형국 목사

첫째 날_1월 29일

#숙소





출처_켄싱턴리조트 서귀포

수양회 스케치

#준비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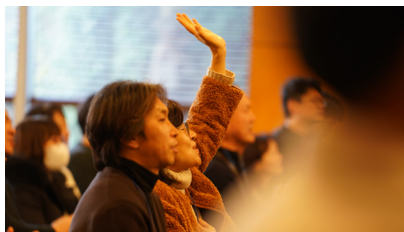
#경축_환영



#지역대표 나눔



#경축예배_찬양



#경축예배_말씀



#웰컴간식



#하나복 목회 도움안내 1



#사례발표1



#예배_찬양



#예배 말씀_ 쇠퇴하는 한국교회... 그러나!



수양회 스케치

둘째 날_1월 30일

#하나복 목회 도움안내 2



#하나복 교회 이야기_김종홍 목사



#예배_길을 잃은 목회... 그러나!





#네트워크별 모임

서울 중서부 네트워크



경주포항 네트워크



고양·서울남부·서울남동부 네트워크



원주 네트워크



광주 호남 네트워크



대구 경북 네트워크



대전 세종 네트워크



고양 네트워크



전주 전북 네트워크



부울경 서부 네트워크



인천 네트워크



파주 네트워크



해군 네트워크



육군 네트워크



춘천 네트워크



#한빛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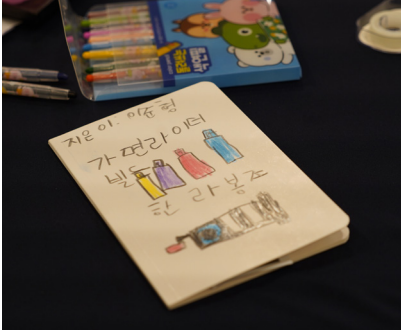
#책판매



#사모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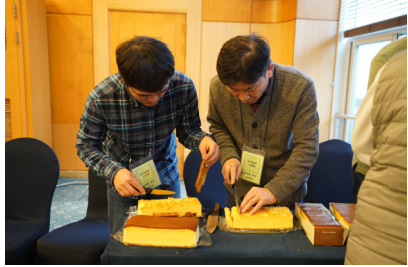
#자녀돌봄



수양회 스케치

셋째 날_1월 31일

#준비



#하나복 목회 도움안내 3



#하나복 교회 이야기



#예배_공동체가 없는 교회... 그러나!







#자녀돌봄



#단체사진



동역회원

한연경 사모

이야기

대전 네트워크
새누리3교회

❶ 수양회 오기 전, 하나복

남편이 3년 동안 혼자서 공부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목회자만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역회원 수련회에 처음 참석하고 올해 두 번째 참여하면서 목회자뿐 아니라 부사역자와 사모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영성과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❷ 수양회 온 후, 하나복

강의 중심, 예배 중심, 사역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참석하고 나니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수고했던 목회자와 사모님들에 대한 쉼과 위로, 그리고 예배를 통한 회복과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 수양회 오게 된 이유

작년에 처음 참석하고 두 번째로 참석하면서 같은 길을 가는 목회자들, 홀로 고군분투하는 목회자와 사모님들과의 나눔을 기대했고, 오랜만에 만나 회포도 풀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4 수양회 에피소드

남편은 축구를 보다가 후반전에 잠들었고, 저는 피곤해서 보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환호성 소리에 일어나 보니 연장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전후반 경기를 보지 않고 연장전부터 승부차기까지 엑기스만 모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중간에 잠든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일찍 잠든 저는 의문의 1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렌트카를 반납하고 차가 막혀서 비행기 시간에 늦었습니다. 기다리다가 결국 출발한다는 항공사의 전화를 받고 검색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발 직전에 겨우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두 커플 덕에 30분이나 비행기 이륙이 늦었다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씩씩하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 수양회 예배

쇠퇴하는 교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속한 이들이 무화과의 초실조차 없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던 것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와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했던 것처럼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 잃은 목회,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지금의 기독교보다 쉽지 않았으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을 세우고 제자화 시키는데 집중하면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바울이 걸어난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야겠다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교회,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다만 진실한 공동체를 위해 내 안에 벽과 상대방의 벽도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나를 내려놓고 중심있는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 사모 모임

생전 처음 본 사모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라는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을 만나서 솔직한 기도 제목과 고민을 나누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관상기도와 적절한 시간 분배와 편안한 인도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신소영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서로 격려하며 안아주고 격려한 시간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사모의 시간을 마련해주세요^^

동역회원

김혜림 사모

이야기

파주 네트워크
사랑더함교회

1 수양회 오기 전, 하나복

사역자(목사)인 남편이 혼자서 두 차례 동역회원 수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동역회원 수양회만큼은 가족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힘이 되고 좋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여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했습니다.

2 수양회 온 후, 하나복

‘좋은 힘과 위로를 받는 자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사례 발표 및 설교와 같은 공적 시간, 네트워크나 사모 모임과 같은 교제 시간, 개인 정비 시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좋은 힘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복 가치로 나아가고 사역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수련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수양회 오게 된 이유

결정적으로는 2023년도에 본강좌, 심화강좌를 하게 되면서 ‘동일한 목회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과의 만남 자체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여 진심으로 동역회원 수양회 참석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4 수양회 에피소드

본강좌 및 심화강좌에 아이 셋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역회원 수양회 소식을 접했을 때,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듯 본인들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반응하여 웃음도 나고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삶에서 하나복이 자주 언급되다 보니 아이들 모두 하나복에 대한 내적 친밀감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양회에는 초등 모임까지 있어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재미있고 좋았다(라임) / 친구도 많이 사귀고 좋았다(라엘)’는 반응을 보여 아이들 역시 ‘하나복 동역회원으로서 누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는 아이들이 하나복 일정에 동반 참석했을 때 아빠 엄마가 어떠한 부르심 앞에 달려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삶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길 바라는데, 실제로 수양회를 마친 후 첫째 아이(초5, 라임)가 '다른 사람이 풍삼초 할 때 좋아보였다'면서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저와 함께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수양회 예배

1)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서

동역회원 수양회까지 왔어도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자리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집중해서 말씀도 듣지 못하는 젊은 사모님들을 보면 남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꼭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기를' 사모하지만 실상은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몸과 마음이 분주하니 한 공간에 있어도 늘 소외를 경험하는 예배당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복을 통해 제게 알게 하신 것,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인격적인 관계, 진실한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도 돌아보는 게 당연하지 싶어서 사례 발표나 설교 내용을 조금 놓쳐도 다른 분 아이를 같이 돌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복은 추후에 강의 참석자에 한해서 영상을 공유해 주시니까요. 내심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수양회 이후 한 사모님께서 '본강좌, 심화강좌에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따라 처음 참석한거라 어색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먼저 말 걸어주고 아이도 돌봐주어 고맙다'고 이야기 해주셔서 저 역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 진짜 동역자를 얻기 원한다면

사실 저는 본강좌, 심화강좌, 동역회원 수양회에서 남편이 가장 적극적인 섬김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각 강좌에 3회차 참석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저처럼 사역자인 남편을 통해 하나복을 접한 사모들이라면 배우자보다 하나복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환경도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배우자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하나복으로 사역하기 위한 당위성 혹은 필요성으로 저에게 하나복을 소개했다면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남편은 하나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지 않으신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 일정에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섬김의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배우자의 '진짜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그 불가능하다는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예배

셋째 날 아침 예배(공동체가 없는 교회... 그러나!)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자매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나라를 살아내고, 보여주는 공동체와 예배가 되어야겠다는 결단 속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잘 살아내서 2025년 동역회원 수양회에서 더 많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6 사모 모임

저는 엄마로서의 역할과 (직업 영역에서) 음악 치료사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는데, 새해에 학업 영역에서 완수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박사 논문 쓰기), 심화강좌를 마칠 때 영적 부모로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을 만나는데 보다 헌신을 하겠다는 다짐에 따라 풍삼초/첫을 위한 만남도 늘어가고 있어 '항상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 어려운 마음이 든다'고 나누었습니다. 이후 침묵 기도 시간을 가질 때 '변화, 비전, 성숙'과 같은 단어가 떠올랐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관점을 바꿔주셔서 그것들이 제 안의 갈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며 목사당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변화를 갈망하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숙해지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 모임에서 짧지만 '침묵 기도'를 경험한 뒤 나눔을 진행한 것도 큰 유익이었습니다. 일상 중에 '대화하듯'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와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 수련회 이후에도 의식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동역회원

지창현 목사

이야기

고양 네트워크
하나두레교회

1 수양회 오기 전, 하나복

하나복의 이미지를 떠오른다면 ‘실만한 물가’와 ‘과녁’입니다. 이유는 하나복은 언제나 사역의 동기부여가 되는 곳이며, 사역의 초점을 다시금 조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훨씬 전에 하나님나라 신학을 사역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하나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복 2기로 본강좌 심화강좌를 수료했습니다) 하나복을 통해서 하나님나라 신학을 교회와 목회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았고, 지금도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복은 언제나 하나님나라를 위한 교회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며, 교정할 수 있는 곳이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복 사역과 함께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수양회 온 후, 하나복

하나복의 이미지 변화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련회는 사역을 쉬고 안식하게 만드는 곳이며, 사역을 돌아보는 곳이며, 사역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곳입니다.

3 수양회 오게 된 이유

쉽과 안식, 동기부여, 사역의 방향 조준, 그리고 동역자들의 교제. 이것이 매년 동역회원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1) 쉽과 안식

하나복 수련회는 꼭 아내와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과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몇 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잘 쉬지 못한 부분의 보상을 얻습니다. 여유 있게 식사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사역과 삼을 나누면서 쉽과 안식을 얻습니다.

2) 동기 부여

김형국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사역과 삶에 동기 부여가 됩니다. 사역하면서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세워야 할 나라, 가야 할 나라, 지켜야 할 나라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나라를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옷깃을 여미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3) 사역의 방향과 조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역을 쉽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역회원 수련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례 발표를 통해서,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고, 가야 할 곳을 조준하여 가려고 합니다.

4) 동역자들과의 교제

이 험한?? 길을 혼자만이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보고 위로를 얻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크게 영광스러운 길을 마다 않고, 바른 길,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모습을 모며 위로를 얻으며, 나도 그 길을 함께 가야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역회원 수련회가 참 좋습니다.



4 수양회 에피소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구요. 이번에 찬양 인도 하신 목사님을 보면서 기타 하나로, 키보드 하나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찬양 인도에 관한 부분은 좀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찬양 인도의 영역도 훨씬 전문적이고,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수련회를 섬기는 분들의 얼굴이 기억에 남습니다. 섬김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밝고 웃는 얼굴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5 수양회 예배

목회가 쉬웠던 적이 없고, 힘들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시대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반쪽 복음이 전해지는 경험을 했고, 소위 교회의 쇠퇴기에는 성도가 너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과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한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을 세우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나라가 도래함을 보여주는 교회를 꿈꾸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목회자가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는 수련회였습니다.

6 수양회 소감

여러 해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나 자신은 언제나 연약하지만, 함께하는 동역자와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복 운동에 대한 변화는 점점 더 하나복에 함께 하는 목사님들과 교회가 움직이고, 이끌어 가고 있음이 보입니다. 하나복 운동은 한 개인의 운동도 아니고, 한 단체의 운동도 아니며, 성경적인 운동이며, 예수님이 일으키고, 걸어가신 운동이니 당연히 그리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은 열리는 시기가 1월인데요. 10-11월에 열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 수련회에 받은 인사이트와 은혜가 1년 목회 계획을 세운 뒤에 생겨서 아 이것 반영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변경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생각을 1년의 사역에 반영하고 싶은 욕심으로 건의 한 번 해봅니다.

하나복 운동을 귀하게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역회원

박대원 목사

이야기

경기중부 네트워크
웨이처치

❶ 수양회 오기 전, 하나복

2018년 본강좌를 듣고 난 후, 코로나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동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일대일로 풍삼초, 첫, 기를 차근차근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가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음을 고백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에게도 하나님나라에 대한 복음을 더 깊게 공부하고 싶게 만들었고,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심화 강좌를 시작하였고 이 자리까지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복은 한 영혼,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선명한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2 수양회 온 후, 하나복

동역회원 수양회에서 같은 마음, 방향, 꿈을 품고 가는 동료 목사님들이 계신 것을 발견하여 감사하고 벅찬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교회 관련된 일이나 문제들 위주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분투를 하고 계신지 보고 들었습니다. 한 영혼,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나라에 대해 꿈을 갖고 참여했는데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나라 복음의 현장을 보고, 함께가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 수양회 오게 된 이유

저는 개척한 지 8년 차고, 미혼모와 미혼부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회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역회원 수양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나누고, 또 연대하고 싶다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4 수양회 에피소드

가장 먼저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내는 10년동안 목회와 러브더월드라는 단체를 저와 함께해준 사람인데요. 아내가 저녁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귀한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나라 복음의 꿈을 내가 꾸고,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나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꿈꾸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두번째는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동역회원 수양회에서 만난 인천 네트워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허물없이 마음을 나누고 영적 동지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또 같이 연대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새롭고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5 수양회 예배

이번에 한국교회의 쇠퇴, 길 잃은 목회, 그리고 공동체가 없음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 철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사명에 대해 진실된 고민과 성찰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철저히 깨지며 회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통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고 또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나도 꿀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생각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 목회 계획 세미나도 다시 신청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풍삼초도 시작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회심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겠다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혼모와 미혼부를 만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영혼에 대한 마음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사역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6 첫 수양회 소감

하나님은 늘 가장 적절한 때와 시간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 자신,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복 사역을 통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수하고 또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삶으로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되자는 마음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7 다음 수양회 기대

다음 동역회원 수양회에 대한 기대는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잘 견디고 살아남아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뻐하고 같이 울고 웃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동역회원

이지일 목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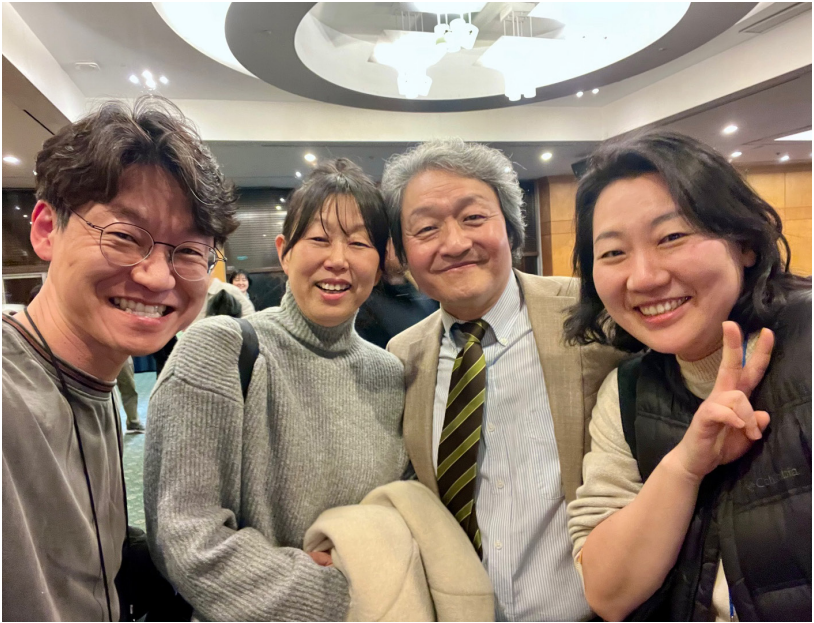
서울 북부 네트워크
나들목동행교회

1 하나복이 잉태하게된 나들목에서 바라보는 수양회

과거 나들목교회나 나들목교회에서 분립한 나들목네트워크 교회들(현 6개 교회)은 명실상부 하나님나라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즉, 하나복의 DNA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하나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들목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나라의 복음 DNA를 품고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초대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겪은 증인이죠.

그런데, 이제 동일한 DNA를 품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복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광경은 저에게는 정말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꿈꾸게 되더군요.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 중요한 그리고 다양한 사역이 김형국 목사님과 ‘하나복DNA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교회로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며 또한 감사했습니다. 김형국 목사님께는 물론이고, 수고해주신 하나복DNA네트워크의 모든 스텝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동역회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을 뿐이지만, 오랜(?) 나들목의 한가족으로서 괜히 뿌듯해지고 어깨가 으쓱하게 되더라구요.



2 수양회 예배

질문을 받고 보니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들은 ‘도전’, ‘경각심’이었습니다. 저는 나들목교회에서 분교한 ‘나들목동행교회’의 대표목사로서 나들목동행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지 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꽤나 안정되었고, 개척기를 지나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김형국 목사님과 나들목교회가 남겨준 여러 유산을 디딤돌 삼아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는 다소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고, 교회를 향한 ‘첫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양회 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하나복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갱신하려는 분들의 간증과 나눔, 그리고 그들의 순전한 고백과 열정을 엿보며 안정적 목회 환경 속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제 자신이 보였고 때문에 마지막 날 예배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깊은 회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른 출발선에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김형국 목사님과 나들목교회의 유산 덕분에 말이죠. 그래서 제 안에는 빛진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유산을 하나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에게 겸손히 나누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어리더가 되고 싶네요.

3 수양회 에피소드

이번 동역수양회에는 아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결혼한 지 18년 차 부부입니다. 세 자녀도 이제는 꽤나 커서, 아내는 계속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이지일 목사의 아내가 아니라, '이유미'라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질문해 오던 아내는 나들목 영성훈련 사역의 간사로 동역하면서 자신 안에 이 사역에 대한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며 영성신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아직 한국 개신교에서 영성신학은 많이 낮은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더욱 신학적 성찰과 분별을 통해서 수용하고 적용해야 할 영역이기도 하기에 아내는 올해 장신대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M.Div)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때를 맞은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은혜를 공유하며 기억과 추억의 나이트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탈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부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일지 함께 질문하며 이 동역회원 수양회를 잘 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속한 서울 북부 네트워크에서는 저와 아내만 이번에 동역회원 수양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둘째 날 오후에 주어진 네트워크 모임이 아내와의 특별한 데이트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라는 특별한 곳에서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 더욱 즐겁고 행복한 수양회였습니다.



동역회원

황사라 권사

이야기

군 네트워크
무열대교회

1 수양회 오기 전, 하나복

하나복에 대한 이미지가 멘토이신 김용우 장로님과 박중희 권사님 통해 많이 들어서 좋은 이미지였고 하나님나라 복음을 알고 듣고 살아내는 분들의 모임이라면 분명히 사랑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기에 하나님나라 가족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축제의 현장일 것 같았습니다.

2 수양회 온 후, 하나복

기존에 생각했던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모임이며,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3 수양회 오게 된 이유

멘토이신 김용우 장로님과 박중희 권사님과 함께 저희가 속한 바나바 공동체 식구들 8명이 매주 줌으로 모이다가 2박 3일 동안 함께 말씀과 침 속에서 힐링하게 하심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군인 가족으로 군선교 현장에서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살다가 왔기에 한마음으로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오심을 알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 되는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4 수양회 에피소드

수양회 전날부터 와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자고 먹으며 서로의 가정사와 치부를 진실하게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김형국 목사님이 비행기도 놓치고 늦게 오셨지만 진심과 전심으로 말씀 전하는 열정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신소영 사모님이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동일한 은혜를 모두에게 주셔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5 수양회 예배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드린다는 말씀처럼 군선교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돕고 성실하게 양육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고, 그들 또한 닮아가도록 도우며 주님 뵈을 때 부족했지만 제가 돌보던 사람들이라고 프리젠테이션 할 날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늦기 전에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가 쉬지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기에 저도 부지런히 쌍코피 터지게 군 장병들에게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6 수양회 소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가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살아내고, 전파하고 전수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과 공감이 되었습니다. 군장병들과 군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위해 맛있는 음식과 강력한 영적 양식인 김형국 목사님 말씀 통해 만져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쌍코피 터지게 부지런히 군선교하며 진실한 공동체의 삶을 먼저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 수양회 다시 오길 기대하며 다음에는 공동체별로 소그룹 나눔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복 식구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동역회원

신동주 안수집사

이야기

군 네트워크
무열대학교

❶ 수양회 오기 전, 하나복

5년 전부터 풍삼초, 첫, 기 과정을 통해 하나님나라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본강좌 및 심화강좌를 거치며 나름대로 하나복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나라 복음을 완성해 가기 위해 깨진 세상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쇠퇴하는 한국 교회, 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현역 군인으로 평일에 온전히 3일간의 휴가를 내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워 참여하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부대 업무 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기쁜 마음과 더불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수양회 온 후, 하나복

수양회를 통해 하나복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깨진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를 도와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군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수양회는 전투하기 위해 전투기를 재정비하는 항공모함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3 수양회 오게 된 이유

23년도에 수양회를 다녀온 김용우 장로님과 박중희 권사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나라 복음의 진리를 명쾌하게 깨닫고, 무엇보다 서로 동역하고 방향을 공유할 좋은 기회라는 사전 정보를 들어서 설레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 수양회 에피소드

먼저 김용우 장로님께서 군에서 하나복을 적용하여 발표한 사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몇 년간 바나바 공동체로 같이 구성되어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활동했던 내용이 수양회에서 발표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하나복 중심의 군 부대 사역이 방향성에 맞춰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뻐던 것은 저는 육군에서 사역하는 데, 하나복을 하는 해군의 목사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2일 차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각 군의 사역을 공유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양회가 군이 하나복을 통해 동역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중간 자유 시간을 통해 우리 바나바 공동체가 음식 교제를 하고, 주변 명소를 돌면서 힐링하고, 사역 방향을 나누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선 바빠서 같이 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에 온전히 3일간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수양회 예배

길을 잃은 한국 교회의 현실, 특히 청년 복음화율이 3% 수준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좌절할 수 있으나 바울이 사명을 인식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수했던 사역을 통해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는 한국 교회, 군 교회이지만 우리 같은 제사장을 통해 군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군 사역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 그러나 선명한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군에서도 세워가야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6 첫 수양회 소감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온전히 드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수양회는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받는 시간이었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구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7 다음 수양회 기대

추후에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꿈꾸며 현장에서 사역하는 많은 성도도 참여하여 수양회를 통해 은혜 받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내가 세우니 함께 하자.

군 사역 현장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며 한 영혼에 집중하여 복음전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파게도 없이 링반데롱 현상에 갇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저에게 시선을 돌려 지금도 나와 우리와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종말론적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될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공동체를 세움에 벽 앞에 주저하고 함몰되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만큼 하면 되었어라고 한계를 정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가자마자 치열하게 사단과 싸워 공동체를 지키고, 풍삼기 공동체와 함께 용기내어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니 실망하지 말고 지지지 않길 바라시는 주님의 격려를 듣습니다.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에 동참하길 바라시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개척 후 첫 진실한 공동체를 시작하고 시범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대도 크지만 함께 할 때 드러나지 않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 불안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소망이기에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처음으로 네트워크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요. 함께 더 뜨겁게 사랑하며 동역하고 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라.. 아버지,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끌어 가는 것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여겨본 적은 없었네요..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꼭 하고 싶은, 꼭 해야 하는 일.. 그런데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말 그 한 마디 앞에서는 다른 표현이 다 사라집니다. 생명을 가졌으니, 그 생명을 낳는 일인데, 그리고 낳기 위해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군요.. 그러니 피할 맘이 없어집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니 안 피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이 우둔한, 참 느린, 참 약한 저도 아버지의 눈길 안에 두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잠자지 말고 깨어 있자.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공동체를 살리자.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영혼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져 가며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갈 뿐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성령님과 함께 피 터지게 일하겠습니다!

수양회를 통해 메마르고 갈라져 있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홀로 세상을 회복하시는 전쟁 가운데 외롭고 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길에 함께 하나복 사역을 통해 함께하길 도전 주시고 메마른 내 영혼에 넘쳐나는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은퇴는 죽는 그날까지 없습니다! 목사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마지막 숨 쉬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든 이 과정도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부정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정면에서 마주하는 수양회
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내게 맡겨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무기력한 시간들속에
있었습니다. 썩지 않을 씨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들어가게 하신 것이 선명해져서 너무 감사하고 도망가고 싶던 마음이
죄송스럽습니다.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이제 내
삶을 교회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대한 어려움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안되는 일이라는 말씀에 위로도 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숨이 붙어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힘을 다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진실한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 나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게 해 주세요.

견딤에 대한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견뎌야 하는지 아니 견딤에 대한 막연한 마음을 정리해주셨고, 9년 만에 하나복 모임을 왔습니다. 그간 사모로 사역을 동역하며 힘들었던 부분이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내면에 집중해서 우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며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내겠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뵙고 싶습니다. 혼자 하는 싸움 같을 때가 많았는데,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있음을 확인하며,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하나복네트워크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역이 진전 없이 멈춘 것 같고 아니 뒷걸음 하는 것 같아 낙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에 파계와 같은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힘겹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섬 얻어가야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례 발표와 찬양, 말씀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몸으로 익히고 살아내신 하나복 스텝들의 인격적인 분위기와 섬김이 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예배에서 잘 쉬고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새 마음으로 잘 살아내야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세웠습니다. 잘 살아내고 또 뵙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안된다고 못 박아버린 자포자기한 저에게 주님의 전능 하심과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과, 김형국 목사님의 말씀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내 모습이었다는 회개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산뜻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이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더 기도하며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충전하여 돌아갑니다.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공동체를 다시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적인 상황을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동역하시기를 원하셔서 세우셨구나. 지금 나의 작은 일과 헌신과 마음이 하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크신 일의 시작이구나. 진실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싹들을 곳곳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중에 나도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 일에 저도 함께 따라야겠다는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아빠로 걸어가고 있다 보니,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욱 알 듯합니다. 또한 그 아빠가 저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주실 것을 붙잡으며 신뢰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더욱 내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곳에서 그곳으로 던져야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제 마음의 이중벽들을 제거하길 원하시며 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길 진실한 공동체로 나와 가족이 교회가 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하고는 있지만 하나님나라가 쇠퇴하는 것은 아니구나. 눈으로 보이는 껍데기는 쇠퇴하지만, 하나님나라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나라를 비추는 공동체는 더 흥왕해 가겠구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사람과 만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며 사랑하며 목회했는지 배우게 하시고, 하나복을 통해 지금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일으키시며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지혜로, 위선적인 사랑을 넘어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더욱 추구하며 제 곁에 계신 주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닮아가는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립니다.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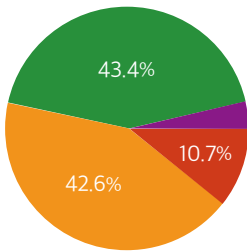
동역회원 기수

13기 21명(17.2%), 10기 16명(13.1%), 9기 14명(11.5%), 12기 10명(8.2%)

네트워커 응답자 소속 (미소속 응답 3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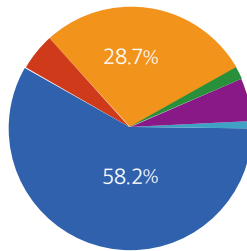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수도권 북부	18	부.울.경	14
수도권 중서부	15	대전, 충청	7
수도권 남부	13	호남	12
강원	10	기타(군, 선교사)	9
영남	9	합계	107

연령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직분



- 담임
- 사모
- 부교역자
- 선교사
- 성도 사역자
- 가정사역자 상담사

참석 이유(3개 중복 선택 가능)

[고민]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목회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_57명(46.7%)
[말씀]	대표목사 강해에 대한 기대	_79명(64.8%)
[사례]	다른 동역자의 사례를 알고 싶어서	_34명(27.9%)
[교제]	동역회원을 알아가고 교제하기 위해	_56명(45.9%)
[쉽]	목회 현장 밖에서 잠시 휴식하기 위해	_57명(46.7%)
[동역]	동역회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_25명(20.5%)
[권유]	주위 권유	_12명(9.8%)
[기타]	아이들이 어려 심화강좌를 미수료했는데 하나복에 대해 알고 싶어서, 가족 수양회는 아이들과 갈 수 있어서, 남편이 즐라서, 남편의 권유	

첫째날 저녁 말씀을 통해 받은 도전_쇠퇴하는 한국교회.. 그러나!

- _ 교회의 쇠퇴는 당연한 것이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 _ 성공적인 목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 _ 깨어진 세상을 이해, 우리의 역할을 인식
- _ 내 사역이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_ 나에게 파게가 있는가! 파게를 향해서 도전해야겠다!! 봐야겠다!
- _ 골로새서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 _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없도록 각성해야겠습니다.
- _ 하나님 나라는 쇠퇴하지 않는다!
- _ 교회는 쇠퇴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나라 공동체가 대안이다.
- _ 파게를 위한 삶이라도 싸우고 있는가..
- _ 파게가 열리고 있다면 긍정적이라는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 _ 현재 상황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 _ 파게가 없는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_ 무화과나무 비유가 늘 의문이었었는데 알게 되고, 파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_ 목회자가 리더 한명 세우는데 드는 헌신과 긴 시간에 대한 감명..
 - _ 파계가 보이는가? 삶과 사역에 대해 깊은 고민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 _ 파계가 없는 교회를 심판하신다.
 - _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파계)을 발견하고, 잘 키워나가라.
 - _ 내 사역에 파계가 있는가.
 - _ 사모인 저 자신조차도 불신자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하게 됐어요.
- 전부터 옆집에 사는 불신자 가정에 대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핑계 대며 주님 주신 감동의 마음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고, 인도하심 따라 가보겠습니다.

둘째날 오전 말씀을 통해 받은 도전_길을 잃은 목회.. 그러나!

- _ 한 사람에 집중해서 사역
- _ 바울의 mosaic을 보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 _ 나는 다시 돌아올 기본이 선명하게 있는가? 선명한 길이 있는가? 세우자!
- _ 각 사람, 종말론적, 성령의 능력
- _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미친 바울, 그리고 MOS
- _ 바울의 M, O, S. 다시 한 번 목회 계획 세미나에 도전
- _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_ 길 잃은 그대여. MOS로 돌아가라.
- _ 길을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된다는 메시지, 큰 위로
- _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도전
- _ 바울의 MOS
- _ 나의 MOS를 만들자.
- _ 종말론적 개념을 선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싶었고 명확히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셋째날 오전 말씀을 통해 받은 도전_공동체가 없는 교회... 그러나!

- _ 진실한 공동체를 위하여 치열하게 사역하라.
- _ 고난은 당연한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신다는 부분
- _ 사랑.. 진실한 공동체.. 나부터.. 되면 우리 가정 먼저
- _ 원래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 방식으로 가능!!
- _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마음이 강했는데, 사례발표와 메시지를 연결해 들으면서 위로와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_ 진실한 공동체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하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 _ 원래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 _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이나 상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 _ 당연한 거였구나~ 내가 겪은 일들이.. 계속 겪을 일이구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정신 차리고 가면 되는구나.
- _ 원래 어려운 공동체 세우기. 하지만 반드시 세워갈 것을 결단합니다.
- _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 _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회복의 일에 함께 참여하길 도전받습니다.
- _ 세상에 방향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 _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 _ 안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들과 공동체를 세워보겠습니다.
- _ 안되는 것을 맡기신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자.
- _ 진실한 공동체는 불가능하고 안되는 일이나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사랑으로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복교회이야기 1 소감

개척교회 사례(박민호 목사), 전통교회 갱신 사례(민경민 강도사)

- _ 진실한 나눔 사례가 개척이 가능함을 보여주신 것 같다.
- _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례
- _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 _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음
- _ 실제 사례를 들으니 더 와 닿았습니다.
- _ 우리나라에 많은 상황이기에, 가장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_ 내가 살아온 고백들같이 하나하나 공감됩니다.
- _ 아직 성공적이다라는 말하지 못할 부분과 실제 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 봐서 좋았다.
- _ 분투한 삶의 과정을 듣는 귀한 시간
- _ 동역교회의 상황을 알아서 좋습니다.
- _ 사모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복교회이야기 2 소감_전주 더온누리교회 사례(김종홍 목사)

- _ 성장 가운데서 치열한 고민
- _ 큰 교회도 가능한 하나복임을 최근 들어 다시 보게 되었다.
- _ 중대형교회 목회의 한계와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 _ 중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 _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고민과 실천
- _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복교회이야기 3 소감_군교회 사례(김용우 장로)

- _ 전략적 접근 도움이 됩니다.
- _ 군에서 하나복으로 갱신되는 기회

- _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좋았습니다!
- _ 자기 삶의 성찰과 도전과 열매가 확실
- _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고 평신도로서의 사역 활동에 존경과 존중이 됩니다.
- _ 군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감격이었습니다.
- _ 군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복 운동에 대한 감사
- _ 명령에 충성하며 흔들림 없이 사역하시는 모습이 놀라웠고, 상황과 형편에 맞춰 변형시키되 본질에 흔들림 없이 뚫고 나가시는 사역, 본받아야겠습니다. 열매를 내는 사역 부럽습니다.
- _ 로드맵대로 적용하는 것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 _ 놀랍도록 전략적으로 또한 추진력을 가지고 군복음화를 위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도전되었습니다.
- _ 상황에서 나를 목회 지침 교과서를 적용해가려는 모습에서 매력과 열정과 성숙함을 다져가는 실재를 보았다.
- _ 하나복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장로님의 삶과 이야기에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고 있구나.
- _ 평신도가 헌신하는 하나복 사역. 대단함
- _ 와우~ 이게 바로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가 보여졌다는 사실과 전략적인^^ 파워 느낌

네트워크별 모임 소감

- _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간이라 좋았음
- _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 _ 우리 네트워크는 아무도 안왔어요.
- _ 네트워크 사모님들과도 조금 더 알게 되고, 아이들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가족이 조금 더 되어감에 감사했습니다.
- _ 편안하고 서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모임이었습니다.

- _ 가족의 첫걸음의 만남이랄까.. 가족의 얼굴을 빈듯한 느낌
- _ 가까운 사역자들을 좀 더 친근히 여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_ 오랜만에 휴양지에서 네트워크 목사님들과 심을 함께 누리며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 _ 시간까지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귄에서 더 소통하는 태도들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 _ 잘 모르는 회원들과 같이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 _ 자유롭게 네트워크별로 잘 누리고 교제할 수 있는 여유와 여백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사모 모임 소감

- _ 사모님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 _ 사모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깐
- _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
- _ 처음 보는 사모님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중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선배 사모님들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_ 나눔 전의 관상 침묵 기도로 통해 주님과 먼저 나누고 사모님들과 나눈 신기한 이 느낌~^^
- _ 관상기도 경험 좋았다.
- _ 렉시오디비나 진행시간만 본다면 좋았지만, 공간 셋팅, 간식, 사전 조장 배치 등 더 준비된다면 마음이 더 열려 많은 사모님들의 참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돌봄 소감

- _ 자녀돌봄 처음 경험
- _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_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음.
- _ 이렇게 해주시면 올 사모 또 올 거 같아요. 최고입니다.
- _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고 안심하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_ 너무 재밌고,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간식 좋고, 다 좋았어요~
- _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도 세미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서
- _ 아이들이 친구가 생겨서 만족합니다.
- _ 아이들이 매우 만족. 사모님에게도 위로와 힘
- _ 아이가 좋아했습니다.
- _ 수양회를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비자가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먼저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수양회 가장 큰 만족(3개 중복 선택 가능)

- _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하나복으로 더 목회하려는 열망이 생겼다. _91명(74.6%)
- _ 사례 나눔을 통해 하나복DNA의 현장 적용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 _73명(59.8%)
- _ 동역회원과 진실한 교제로 상호 격려와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_82명(67.2%)
- _ 개인과 가족에게 충분한 쉼의 시간이었다. _40명(32.8%)
- _ [기타] 개인의 고민이 해결됨, 열어진 마음을 다 잡는 시간이었음, 남편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자원하도록 노력해보고 용기를 주어야겠다.

내년 동역회원 수양회 추천 지역

강원 지역	38.1%
수도권 지역	31.4%
부울경 지역	12.4%
영남 지역	6.7%
호남 지역(대전 충청, 제주 포함)	11.4%

하나복 동역회원 수양회를 마치며...

사랑하는 김형국 목사님, 스텝들의 땀과 정성, 하나복의 좋은 동지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포근하고 아늑한 숙소... 동역회원 수양회를 준비하며 감사하게 만드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이 또한 있습니다. 쇠퇴하는 한국 교회, 쉽게 보이지 않는 소망,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

그런 가운데 24년 하나복 동역회원 수양회를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이번 수양회를 통해 저는 제가 잠들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을 뜨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깨어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번 수양회는 제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수양회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세계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요 21:19)”고 초청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머뭇거리고, “나만 가야 하나요. 다른 사람은요?”라고 주춤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고 하시며, 꼭 집어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수련회였습니다.

지금의 계절은 상당한 추위지만, 이 시간이 있어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서부권 지역대표 류상선 목사
(광주 슬기교회 담임목사)



하나님나라복음
DNA NETWORK